

# “광주 U대회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 전담 경비대 발대식...연인원 11만6651명 도심 경비 교통전담·대테러부대 등...다음달부터 실천 프로그램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 전 세계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책임질 'U대회 전담 경비대'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오는 29일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U대회 전담 경비대'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1500여명의 경찰관과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 U대회 기간 동안 연인원 11만6651명의 경찰이 광주 도심 곳곳을 경비하게 된다.

전담 경비대는 교통전담부대, 대테러부대, 북한선수단 대책반, 관광경찰대, 경찰서비스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하루

평균 4320명이 대회 경비에 나선다. 개막일인 7월 3일에는 광주청 1920명을 이끌고, 6월부터 현지 적을 비롯한 타 지방청 4863명 등 총 6783명이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이들은 현재 각 전담반별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6월부터 현지 적을 훈련 등 실천에 대비한 경비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 총포·화약류 취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대회 D-15일부터는 1일 안전점검과 24시간 전담경비대 배치 등 실천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대회진행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주경기장 주변 극심한 차량정체 해소 등을 위해 교통관리 본부를 편성·운영하고, 불법 주차차량 단속 등을 비롯한 차량자율 2부제, 대형마트 휴무일 조정 등 다양한 교통 완화 대책도 마련중이다.

FISU 회장 등 주요 참여 인사에 대해서는 근접경호 및 이동차량 에스코트 등을 지원하고, 입국에서 출국까지 국내 전 일정 신변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8개 종목 111명이 참석할 예정인 북한 선수단의 안전 확보 대책도 마련된다. 북한선수단 경호를 위해 보안대책반 329명과 교통순찰차 8대, 경호 오토바이 16대 등이 배치되며, 대회기간 내내 근접경호에 나설 계획이다.

##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에너지 타운으로

### 광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투자 공모

광주시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26일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 타운 내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투자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전시설 면적은 27만 9208㎡, 규모는 12MW로 사업비는 288억원이 투입된다.

민간투자자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 2단계로 나눠 추진될 이 사업은 2017년까지 12MW급을 설치한 뒤 운영 성과에 따라 8MW급 시설을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단계(12MW급) 사업비 288억원 가운데 90%는 국비(용자)지원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10%를 민간참여 입자가 부담한다.

시는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판매 대금 등 20년간 발생할 100억원 가량의 수익금 중 60억~70억원 가량을 지역주민사업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5.18km에 이르는 친환경 누리길과 체육공원 조성도 추진된다.

누리길은 인접한 국립 5·18묘지와 연계해 인공과 환경을 조화시킨 인공생태 탐방로로 조성된다. 누리길 중간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과 체육공원에는 게이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애초 들어설 계획이었던 기후변화체험관과 그린빌리지 건립 등은 시설 중복과 그린벨트에 따른 용도변경 등으로 조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10년 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매립장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매립면적 26만2000㎡에 매립용량 4369㎡에 달하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부터 매립에 들어가 지난 2004년 완료됐다. /채희종기자 chae@

## 한·중 FTA 국무회의 통과

### 상반기내 정식 서명...301개 품목 발표 즉시 관세혜택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별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그렇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엔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공식 발효된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

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잘못 가지고 놀 경우 4주 이상 다칠 수 있는 장난감은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1~2개월 내에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에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도록 했고, 한옥 10채 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경우 한옥마을로 조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란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폐지한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PP 중단하라”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중단 촉구 국제 행동 집회에서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농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노인회 “노인 기준 연령 65세서 더 올려야”

대한노인회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이 단체의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 안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총장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 수급을 늦추는 것이 젊은이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회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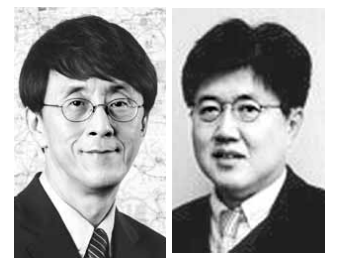
## 국토부 제1차관 김경환·통계청장 유경준

### 차관급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경환(56) 국토연구원장을, 통계청장에는 유경준(5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년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경환은 “신임 김 차관은 국토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인 중견 경제학자로 한국 주택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주택 건설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 국토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 경제학 교수, 한국주택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등을



김경환 유경준

지냈다. 또한 유 신임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해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코넬대 노동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KDI정책대학원 교수, 국립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임재호(57)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내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인전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정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